

최태원 회장 “글로벌 무대에서 승리 할 ‘소버린 AI’ 개발할 것”

SK그룹 ‘이천포럼 2025’

한국형 AI 주권 확보 포부 밝혀
‘AI 3대 강국 실현’이 핵심 과제
최 회장 장녀 최윤정, 첫 공식 행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소버린(Sovereign·주권형) 인공지능(AI)’ 개발 의지를 공식화했다.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독립적 AI 체계를 구축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형 AI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최태원 회장은 18일 서울 광진구 위커킬 호텔에서 열린 SK그룹 지식경영 플랫폼 ‘이천포럼 2025’ 개막 행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버린 AI는 국내용이 아니라 글로벌 경쟁이 핵심”이라며 “세계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AI를 반드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버린 AI에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중요한 점은 국내가 아닌 글로벌 무대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18일 서울 광진구 위커킬 호텔에서 열린 ‘이천포럼 2025’에 참석했다. /SK그룹

강조했다.

소버린 AI는 자국 데이터와 인프라를 기반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통제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 과제로 내건 ‘AI 3대 강국 실현’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최 회장의 발언은 AI 패권 다툼이 격화된 상황에서 한국만의 독립적 AI 체계 구축이 생존 전략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천포럼은 SK그룹의 대표 전략 논의의 장으로 6월 경영전략회의, 10월 CEO 세미나와 함께 그룹 핵심 의사결정 축을 이룬다.

첫날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최재원 수석부회장, 최창원 수석추진위원회의장 등 그룹 핵심 경영진과 주요 계열사 CEO 등 250여 명이 총출동했다. 개회사는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맡았다.

곽 사장은 “아사 직전이던 회사가 SK와 만나 세계 최초 HBM(고대역폭 메모리) 개발, 글로벌 D램 시장 1위, 시총 200조 원 달성을 이루었다”며 “이 모든 성과는 SK 인수와 과감한 투자, 미래 안목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2년 최 회장이 경영난에 빠진 하이닉스를 인수하고 대규모 장비·설비 투자를 단행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곽 사장은 “수펙스(SUPEX) 정신, 즉 최고 수준을 지향하며 끊임없이 개선하는 기업문화가 현재와 미래 SK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장녀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본부장이 SK(株) ‘성장 지원 담당’을 겸직하

뒤 처음으로 공식 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SK(株)는 SK그룹 지주회사로 투자 및 사업형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후계자 수습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포럼 첫 세션은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재편, 한국기업 해법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와 징 첸 아시아소사이어티 중국분석센터 소장이온 라인 기조연설을 맡았고, 윤치원 SK사외이사,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박석중 신한투자증권 부사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천포럼 2025’는 오는 20일까지 AI와 디지털 전환(DT)을 핵심 주제로 이어진다. 오는 19일에는 멤버사별 워크숍을 통해 SKMS(SK Management System) 실행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SK서린사옥에서 포럼 성과 점검과 최 회장의 폐막 연설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내달까지 전국서 5만 가구 분양 쏟아진다

일반 분양물량 2.8만 가구 예정 “실수요자 라면 움직임 타이밍”

오는 9월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5만 가구가 쏟아질 예정이다. 상반기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분양 물량이 밀리면서 비수기에도 대규모 공급이 예고됐다.

1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이달 중순부터 9월까지 전국 분양 물량은 5만2845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은 2만8322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달 중으로 2만4720가구(일반 1만4772가구)가 본격 공급되고, 9월에도 2만8125가구(일반 1만3500가구)가 시장에 나온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복잡한 정치·경제 상황이 맞물리며 상반기에는 분양 물량이 제한적이었다”며 “청약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춤한 상황이지만 전·월세 시장 불안과 임대료 상승 압박 속에서 실수요자라면 움직임 타이밍이다”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전국 1순위 청약 경쟁률은 7.07대 1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2.46대 1 대비 낮아졌다.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요자들의 진입이 제한됐고, 지방은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로 미달 단지가 속출했다. 반면 수도권 핵심 입지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는 청약이 몰리는 등 양극화가 심화됐다.

다음달까지 수도권에서는 3만5861가구(일반 1만7416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인 ‘아크로 드 서초’와 ‘잠실르엘’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시장에 나온다. 한강조망이 가능한 합정역 초역세권 리비움한

강도 청약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에서는 과전에서 주암장군마을 일대에 선보이는 ‘디에이치 아텔스타’가 분양 예정이며, 의정부 ‘탐석 푸르지오 파크7’와 용인의 기업형 민간임대인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등도 계획돼 있다.

인천에서는 올해 좋은 청약 성적표를 받았던 검단신도시에서 ‘엘리프 검단포레듀’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나올 예정이다. 또한 미추홀구에서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광역시에서는 부산 물량이 가장 많다. 사상구에서는 서부산 첫 사상공원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지어지는 ‘더파크 비스타동원’과 함께 부산진구 ‘힐스테이트가야’와 ‘서면 어반센트 데시앙’ 등이 분양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

외국 기업 “韓 투자 매력 부정영향 우려”

>> 1면 ‘경영계, 노란봉투법…’서 계속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이라도 국회가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 서도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계의 대안을 심도 있게 고려해 수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외국 기업들도 노란봉투법 추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도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

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이고 올해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인데, 이런 시점에 노란봉투법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파업의 일상화’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돼 왔던 단단계 하도급 구조, 간접 고용,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 부정 등의 문제로 많은 갈등과 대립이 발생해 왔다”며 “이런 극단적 갈등과 대립이 오히려 많이 완화될 것이고 사용자들이 이야기 하는 파업도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의료·교육 등 정부 제공한 서비스에 가계소득 연평균 924만원 상승효과

‘사회적현물이전 반영 소득통계’ 통계청, 가구소득 대비 12.9% 수준

정부가 의료·교육 등에서 제공한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계의 소득을 연간 900만 원 이상 불리는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이란 국가·민간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화폐가 아닌 현물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 국가장학금,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이 이에 속한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924만 원으로 가구소득 대비 12.9%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가구소득의 12.9% 정도를 정부가 대신 지출하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사회적 현물이전은 2021년 892만 원, 2022년 923만 원, 2023년 924만 원으로 등으로 증가했다. 2023년 가구소득은 7185만 원 수준이었는데 사회적 현물이전을 합한 조정가구소득은 8109만 원까지 높아졌다.

다만 최근에는 비중이 낮아졌다. 사회적 현물이전이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4.9%로 고점을



찍은 뒤 2020년 14.2%, 2021년 13.8%, 2022년 13.6%, 2023년 12.9%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관세부과 이후 철강수출 매달 역성장

>> 1면 ‘美 50% 철강 관세…’서 계속

문제는 관세 강화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상무부가 업계 요청에 따라 과생상품 규제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 관세를 첫 무역조치로 삼은 만큼, 앞으로도 보호무역 기조는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글로벌 철강규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을 겨냥한 신규 수입 규제 10건 중 절반인 5건은 철강·금속 분야였다.

정부는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이미 관세대응 119 통합창구, ‘미국 관세 헬프데스크’ 운영,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등을 통해 법률 자문, 피해 분석, 대체시장 발

굴 등을 지원해왔다. 여기에 더해 철강산업의 구조 전환을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인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대응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철강·알루미늄 합량 확인이나 원산지 증명 등으로 컨설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분담금도 획기적으로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아름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합량, 수입 증가 여부와 무관하게 업계 요청이 있으면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우리 수출기업은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합량 확인, 원산지 입증 자료 확보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